초하루의 축복

본문의 말씀은 노아의 방주가 기나긴 홍수를 견디고, 이제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세상을 깨끗이 하신 후, 노아에게 새로운 삶과,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선 이때 노아에게 3가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날은 한해가 시작하는 첫 달의 초하루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한 해가 시작하는 새해, 정월 초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장애물이 걷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 8:13)
비를 내리게 하신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물을 걷히게 하신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도 장애물이 걷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먹구름은 이제 걷히고 마른 땅을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 8:15)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정월 초하루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바로 그때, 말씀이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초하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 8:20~21)
초하루, 새로운 삶을 받은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사와 기쁨의 감격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며, 매순간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새로운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며,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정월 초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롭게 되는 초하루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축복은 정월 초하루, 새해 첫날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매일 매순간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 가정예배

한국기독교장로회 광주양림교회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설 가정예배

예 배 부 름 ---------- 인 도 자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28장 ---------- 다 함 께

기 도 ---------- 가 족 중

성경봉독 ---------- 창세기 8:13~22 ---------- 인 도 자

말 씀 ---------- “초하루의 축복” ---------- 맡 은 이

찬 송 ---------- 384장 ---------- 다 함 께

주 기 도 문 ----------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 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하리라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예수 인도하셨네 아멘